



SK텔레콤 B2B 모바일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스마트백신'



- MDM 연동 가능한 안티 바이러스 엔진
- 기존 구축된 보안 시스템에 백신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 향상
- 다양한 기업 및 기관에서 합리적 금액으로 이용 가능



SK텔레콤의 '스마트백신'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용 모바일 단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구축된 MDM 보안 솔루션과 결합하여 업무용 단말을 효율적으로 관리, 관제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된 서비스로 기업 및 기관이 이용 중입니다.

- 산업 : B2B
- 대상 : 모바일 엔드포인트 보안이 필요한 기업 고객
- 솔루션 : OnAV

Challenge

SK텔레콤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솔루션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과 안티바이러스로, 두 제품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각각 동작하거나 서드파티(Third Party) 앱이 안티바이러스 앱을 호출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작 방식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었고, SK텔레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MDM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olution

시큐리온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시큐리온은 SK텔레콤이 겪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MDM과 안티바이러스를 통합한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자를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자에서 안티바이러스 정책을 설정하면 OnAV가 그대로 악성 앱을 탐지, 검사하고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정책 및 솔루션의 관리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고, 다수의 기업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Result



기존 보안 기능과 OnAV 연동으로 제품 업그레이드

모바일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안티바이러스와 MDM은 가장 대중적인 솔루션인데, 모든 기업이 이런 솔루션들을 같은 보안 제조사에서 동시에 구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시큐리온은 SK텔레콤의 '스마트백신'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보안 솔루션에 OnAV 엔진을 연동해 무리 없이 제품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 적용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자를 통해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의 관리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직접 정책을 설정하고 탐지된 앱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